



자유주의 정보 18-12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Shane Tews, Keys to the smart cities of tomorrow: Technology partnerships and the Internet of Things

January 25th, 2018

미래의 스마트 시티의 열쇠 : 기술협력과 사물인터넷

이번 달에 열린 2018 년 소비자 가전 전시회(Consumer Electronic Show, CES)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만큼이나 협력과 협력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 CES 의 많은 회사들은 - 구글의 어시스턴트(Assistant)나 아마존의 알렉사(Alexa) 같은 - 음성 비서와 결합된 스마트 잠금, 센서, 스마트 온도조절기, 스마트 기기, 그리고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리모컨과 같은 "스마트 가정"에 대한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었다.

미국인 여섯 중 하나가 이제는 스마트 스피커를 가지고 있다 - 2017 년 1 월부터 128% 증가한 것이다. 말할 줄 아는 디지털 비서의 등장은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기술 플랫폼이 얼마나 쉽게 회사들을 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함께 일하게 할 수 있는지 확연히 보여준다. 이는 또한 사람들이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꾸는 기저의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것을 얼마나 소비자들이 쉽다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기술 기업들이 이런 측면에서 협력할 때, 기술이 "더 스마트해지는" 혹은 사용하기 쉬워지는 것을 허락하면서 그리고 데이터를 접근하기 더 쉽게 만들면서, 콘텐츠와 정보는 빠르게 흐른다. 더욱 사용자 친화적인 형식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모든 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도 기술적 혁신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스마트 스피커는 사용자들이 가정과 일을 통틀어 기술을 집약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단순화 기기의 하나의 좋은 예다.

이런 기술 진전의 유망함은 거대한 데이터 집합과 결합될 때 배가된다. CES 전시회는 기술 협력의 새로운 영역을 강조하는데 헌신하는 모든 영역을 담고 있었다. 기술 기업과 협력하는 것으로, 도시는 그들의 서비스를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향상시킬 수 있고, CES 의 기업들은 어떻게 지자체가 도시 전체적인 서비스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더 기여할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소비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런 서비스들의 비용을 줄이는 것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에 집약하는 것에 대한 비전의 일부다. 한 가지 간단한 예시가 가로등이나 쓰레기통과 같은 일상적인 대상들을 작은 센서와 모니터링 플랫폼으로의 연결성을 더하여 "스마트"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 공무원들은 이웃의 위생과 안전 수요에 더 기여할 수 있다.

보스턴에서는, 도시가 도로 유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크라우드소싱과 "Street Bump"라 불리는 하나의 앱을 사용한다. 도로 구덩이와 같은 도로 파손에 대한 지리위치 정보를 그 앱이 도시에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그 앱을 쓰는 운전자들은 도시의 도로 수리 노력에 기여한다. 이런 예시는 크라우드소싱과 지방 정부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종종 제한되는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시민들의 피드백을 노력에 반영하기 위해 어떻게 오픈 소스 절차와 실시간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공공 안전, 교통, 그리고 시민 참여는 "스마트 도시" 기술이 목표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영역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 플랫폼은 생산성을 증대 시키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이런 모든 영역의 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늘리는 데이터의 공유를 가능케 한다. 데이터가 운용하는 노력은 새로운 생각, 더 나은 절차, 그리고 새로운 팀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물을 위한 도시 계획으로 데려간다. 수년간 기업들이 시행 중이었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관련 서비스들은 이제 더욱 소비자의 지원에 맞게 다뤄질 수 있다.

사회가 일상의 데이터 사용을 더욱 축적해가면서, 지방 정부가 소매상들과 공급자들이 소비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것과 동일한 데이터 흐름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데이터과학자들은 분석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도시가 더 기여하도록 할지 시각화 하는 전문 능력을 가지고 일한다. 기술 기업들과 협력하는 것은 시 정부가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부가 이미 많은 기업들에 의해 활용된 소비자 중심적인 접근을 하도록 더 기여하고 도울 수 있게 되는 이상적인 방법이다.

사물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는 더 스마트한 교통 계획과 더 나은 지역 자원의 사용을 가능케 할 것이고 그것들이 가장 수요되는 곳으로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도울 것이다. 투명한 데이터 집합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떻게 도시가 자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서비스를 관리하는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도구들은 시 정부의 생산성과 시민들이 정부로부터 원하는 개방성과 효율성을 증진할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야 구글, 이 길에 전등 부서진 거 시청에 보고해."

번역: 김영준

출처: <http://www.aei.org/publication/keys-to-the-smart-cities-of-tomorrow-technology-partnerships-and-the-internet-of-things/>